



KBL은 지난해 무산됐던 '농구영신' 매치를 올해는 안양에서 열기로 14일 결정했다. 2019년 12월 31일 사직체육관에서 펼쳐진 농구영신 매치 도중 타종행사. 사진제공 | KBL

‘농구영신’ 열린다

KBL, 31일 KGC-DB전 개최 확정

KBL이 탄생시킨 단일경기 최고의 이벤트인 ‘농구영신’ 매치가 2년 만에 팬들 곁으로 돌아온다.

KBL은 14일 제27기 제4차 이사회를 열어 2021~2022시즌 농구영신 개최에 대해 논의했다. 이사회는 올해 농구영신 매치를 31일 오후 10시 안양체육관에서 정상적으로 펼쳐기로 의결했다. 안양 KGC-원주 DB전이다. 아울러 다음 시즌에는 장소를 원주로 옮겨 DB와 KGC가 재경쟁하는 것을 승인했다.

KBL은 “농구영신 매치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현장에서 운영되며 티켓 예매, 주요 행사 소개 등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 KBL은 이사회를 통해 농구영신 개최 여부를 최종 결정했다. 확진자 증가세가 가라앉지 않고 있지만, 실내스포츠 관람의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만큼 최대한 안전을 유지하는 선에서 경기의 정상적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2016년부터 시작된 농구영신 매치는 농구장에서 팬들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이벤트가 가미된 정식 경기다. 올해 정상적으로 경기가 펼쳐지면 5번째다. 3회째에는 오후 11시에 경기를 시작해 하프타임에 타종행사를 지켜본 뒤 3쿼터 경기를 진행하기도 했다.

농구영신은 농구팬들뿐 아니라 일반인들도 농구 경기가 펼쳐지는 체육관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 이벤트로 자리를 잡았다. KBL은 ‘농구영신’으로 특허청에 상표출원을 해놓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개최하지 못했다. 최용석 기자 gtyong@donga.com

편집 | 한민규 기자 slapspe@donga.com

외국인선수 없는 최하위 삼성에 25점차 압승

‘9연승’ KT, 출전명단 12명 전원 득점 진기록

허훈·하윤기 등 두 자릿수 득점 5명
3점슛 14방 등 다양한 공격루트 뽐내
팀 최다 연승 타이...단독 선두 굳건



수원 KT가 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인 9연승을 질주했다.

KT는 14일 수원 KT아레나에서 열린 ‘2021~2022 KGC인삼공사 정관장 프로농구’ 정규리그 3라운드 서울 삼성과 홈경기에서 출전명단 12명이 모두 득점하는 진기록으로 84-59로 낙승했다. KT는 이날 승리로 올 시즌 연승 숫자를 ‘9’까지 늘렸다. 2009년 이후 12년 만에 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을 세우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17승5패를 마크해 단독 선두 자리도 굳건히 했다. 최하위 삼성(6승16패)은 4연패 늪에 빠졌다.

정상적인 전력으로 싸울 수 없는 상태에서 만난 KT는 삼성에게 버거운 상대였다. 삼성은 대체 외국인선수 토마스 빈슨이 취업비자가 나오지 않아 이날 예정됐던 데뷔전이 무산됐다. 설상가상 다니엘 오세푸마저 무릎부상으로 경기에서 출전하지 못했다.

KT는 외국인선수가 없는 삼성의 약점을 1쿼터부터 파고들었다. 1쿼터 14리바운드를 기록한 반면, 삼성은 7리바운드에 그쳤다. 삼성은 끝말 열세에도 1쿼터

1점차 접전으로 분전했으나 2쿼터 들어 체력이 급격하게 떨어졌다. 무려 8개의 턴오버를 기록하며 자멸했다.

KT는 2쿼터 5개의 스틸로 삼성의 턴오버 대부분을 속공으로 연결시켰다. 6번의 속공 득점으로 삼성 수비진을 압도했다. 여기에 외곽포까지 터지면서 일찌감치 승기를 잡았다. KT가 2쿼터에 터트린 3점슛만 무려 6개였다.

3쿼터를 63-45로 마친 KT는 큰 위기 없이 넉넉한 점수 차를 4쿼터 내내 유지했다. 삼성 이원석이 3쿼터에만 7득점하며 분발했으나 KT 김영환과 양홍석의 3점슛이 다시 팀에 꽃이며 추격 의지가 꺾였다.

KT는 4쿼터에 정성우, 한희원, 문상욱의 승리를 확정짓는 외곽포까지 터지면서 이날만 14개의 3점슛을 성공시켰다. 허훈, 하윤기(이상 13점), 정성우, 김영환(이상 11점), 캐디 라렌(10점)이 두 자릿수 득점을 올리며 다양한 공격 루트를 자랑했다. 출전명단에 있는 12명이 모두 득점하는 진귀한 장면까지 만들며 팀 최다 연승 타이 기록 달성을 자축했다. 수원 |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KT 하윤기가 14일 수원 KT아레나에서 열린 삼성과 경기 도중 두 핸드 덩크슛을 림에 꽂고 있다. KT는 이날 승리로 팀 최다인 9연승 타이 기록을 세웠다. 수원 | 김종현 기자 won@donga.com



구나단 대행 “김단비, 6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 자격 충분”

(신한은행)

올시즌 득점 전체 2위 ‘중형무진’
꾸준한 활약 펼치며 팀중심 잡아
아쉽게도 올스타전 개최는 무산

“자격은 충분합니다.”

인천 신한은행 구나단 감독대행(39)은 김단비(31)가 6년 연속 올스타 팬 투표 1위를 차지한 것을 두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단비는 13일 WKBL이 발표한 ‘삼성생명 2021~2022 여자프로농구’ 팬 투표에서 1만8947표를 받아 2016~2017시즌부터 6년 연속 최다득표의 기쁨을 누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스타전 개최가 무산된 사실은 아쉽게

만, 팬들이 선정한 최고 인기선수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득점(21.6점)-리바운드(14.4점) 부문 1위를 기록 중인 청주 KB스타즈의 ‘국보 센터’ 박지수와 부천 하나원큐의 에이스 신지현도 제했다.

김단비는 팬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요소를 두루 갖췄다. 늘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신한은행의 중심을 잡고 있다. 2010~2011시즌부터 평균 출전시간 30분, 10득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입증된다. 팀이 부진에 빠졌을 때는 한 발이라도 더 뛰며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 애썼다. 그뿐 아니라 팬들과 거리를 좁히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모습도 많은 표를 받기에 충분했다.

올 시즌 기록 또한 최다득표를 뒷받침하

는 자료다. 12경기에서 평균 36분4초를 뛰며 20.58점(2위)·9.3리바운드(3위)·4.17어시스트(7위)로 중형무진 활약을 보여주고 있다. 신한은행이 3위(9승6패)를 달리는 데는 김단비의 공이 절대적이다.

구 대행도 엄지를 치켜세웠다. 13일 하나원큐와 홈경기(90-64 승)에 앞서 “본인은 ‘결혼도 했고, 최다득표에 욕심이 없다’고 했다”며 “기본적으로 농구를 잘하니 당연히 올스타 팬 투표 1위의 자격은 충분하다. 올해는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매 경기 많은 출전시간을 소화하며 희생하고 있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김단비의 존재감과 투철한 프로정신을 인정한 것이다.



구나단 감독대행

김단비

팀플레이를 특히 강조하는 구 대행에게 더 기쁜 일은 김단비를 비롯해 유승희, 이정은, 한채진, 김아름까지 신한은행의 ‘베스트5’ 전원이 올스타에 선정된 것이다. 팬 투표의 결과이기에 선수들도 자부심을 가질 만하다. 이에 구 대행은 “굉장히 영광”이라면서도 “올스타답게 해야 한다”고 책임감을 강조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명품 골프 반집업니트 초특가 파격 세일!! 2점 49,800원

영상의 날씨에는 점퍼대용으로, 영하의 날씨에는 점퍼안 가벼운 세컨니트로!

2022 BEST



1



2



3



4



5



밀단 쫄쫄한 시보리 적용



안감 전체 기모 적용



세련된 지퍼 적용

따뜻하고 실용적인 디자인

디자인에 반하고, 따뜻함에 또 한번 반하게 될 전천후 니트. 폴리에스터100% 안감기모로 내추럴한 디자인에 안감 기모가 더해져 실용적이고 따뜻하게 착용할 수 있다.

유행을 타지 않는 클래식한 디자인

모던하고 클래식한 디자인과 디테일로 당신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준다. 신축성과 활동성이 높아 착용감이 좋으며, 탄탄한 조직감의 소재로 제작. 오랫동안 착용해도 변형이 없다. 소매부분 팽팽한 시보리 제작.

디테일을 살려 탁월한 핏감

실한을, 정교한 디테일, 구조적 형태를 위해 노력했다. 지루하지 않은 윌트있는 센스와 소매의 트임, 딱 떨어지는 어깨선, 입체감 있으면서 자연스러운 표현. 겨울 골프웨어 느낌의 스포티한 기능성, 실용성을 결합하여 세련미 넘치는 룩을 지향한다.

사이즈 95, 100, 105
판매가 2점 428,000원- 49,800원 (배송비 3,000원 소비자부담)
3점 492,000원- 74,700원 (배송비 무료)

입금계좌 <농협> 301-0217-7784-41
예금주 (주)원프로톤
쇼핑몰 www.OPTOP.co.kr
문의전화 1644-3606